

공공기관 채용비위, 무관용의 원칙으로 공정과 신뢰를 지키겠습니다.

< 보도 내용 >

- 2026.10.3.(토) 동아일보 「가스안전공사 인사처장, 자녀 지원 침묵하고 공채 지원했다」 제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.
 -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처장은 자신의 자녀가 공개 채용에 지원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며,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자체감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도 경징계에 그침

< 산업부 입장 >

- 산업통상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감사 경과, 처분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부실감사, 봐주기 처분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.
 - 이와 함께 산업통상부 소관 전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현황, 이해충돌 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.
-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“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그 가족의 심정으로 채용비위를 뿌리부터 근절”하고, “공공기관의 채용의 공정과 신뢰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습니다.

담당 부서	자원산업정책관 자원안전팀	책임자	팀 장	정종윤 (044-203-5180)
		담당자	사무관	임정준 (044-203-5184)
	감사담당관	책임자	과 장	이원규 (044-203-5420)
		담당자	사무관	정기택 (044-203-5421)